



중국리포트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国上海市 长宁区 遵义路 100号 南丰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 18-5 호
 2018년 3월 12일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이슈 포커스 :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동향 & 뉴스

■ 2017년 중국물류산업 주요 지표 (조 위안, %)

구분	금액	증가율
사회물류 총비용	12.1	9.2
운송비	6.6	10.9
보관비	3.9	6.7
관리비	1.6	8.3
사회물류총액	252.8	6.7
물류산업 총수입	8.8	11.5

자료 : 중국물류·구매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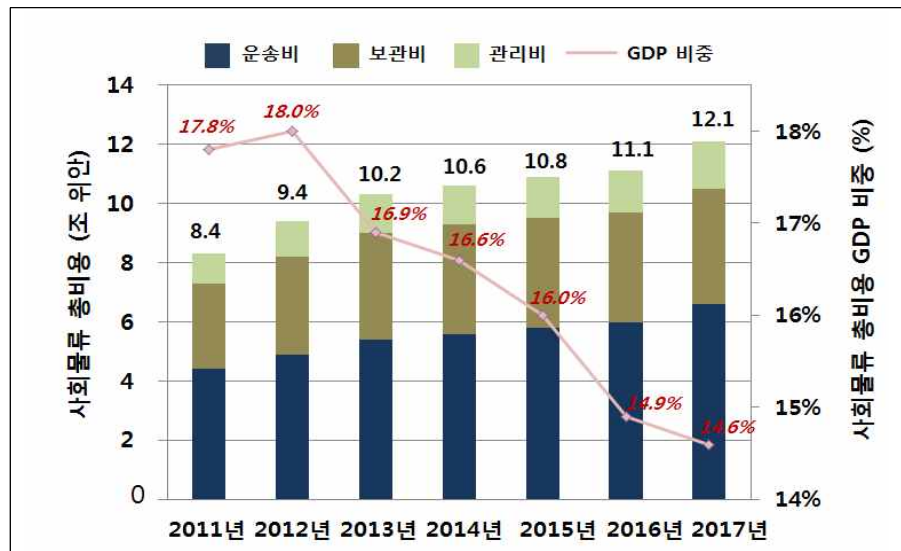
■ 국가물류비와 사회물류 총비용 - '국가물류비(National logistics costs)'란 수송, 보관, 창고, 하역, 포장, 물류 정보 및 일반관리 부문에서 회계기업이 지불하는 총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한국 교통연구원이 산정 발표해 온.

중국의 '사회물류 총비용(Total social logistics costs)'은 '중국 내 상주하는 경제 주체들이 물류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에 해당하며, 국가별로 국가물류비 산정 방식은 다소 상이한 일례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의 '수송비' 항목에는 '국제화물 수송비'가 포함되나, 일본의 경우 포함되지 않음.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를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자료 : 중국물류·구매연합회, 「전국물류운행상황통보」 2011~2017년 통계를 바탕으로 KMI 작성.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12.1조 위안, GDP 비중 14.6%

2017년 중국의 '국가물류비'에 해당하는 사회물류 총비용(社会物流总费用, Total social logistics costs)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12조 1천억 위안을 기록했다. 사회물류 총비용 중에서 운송비용은 6조 6천억 위안(전년대비 10.9% 증가)이었고, 보관비용 3조 9천억 위안(6.7% 증가), 관리비용 1조 6천억 위안(8.3% 증가)으로 나타났다. 사회물류총비용에서 운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4.7%로 전년대비 0.9%p 증가한데 반해, 보관비용의 비중은 32.4%로 0.8%p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화물의 회전속도가 제고됨에 따라 창고 보관 시간 및 그에 따른 원가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의 GDP 비중은 14.6%로 전년에 비해 0.3%p 감소했고, 2012년 18.0%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중국의 물류원가 절감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은 2016년 「물류업 원가절감 및 효율증대 전문항목 액션플랜(2016-2018)」을 발표한데 이어, 2017년 「물류 원가절감 및 효율증대의 추진을 통한 실물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물류원가 절감을 강조해 왔다. 지난 3월 5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정부업무보고」에서도 '물류원가 절감 추진'이 다시금 언급되었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 동향 & 뉴스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01-05	03-09
종합지수	773.28	830.88
일본 향로	678.52	701.91
구주 향로	1,055.59	1,098.93
미서부 향로	612.18	655.00
미동부 향로	783.03	906.90
한국 향로	614.11	578.25

주 : '01-05' 2018년 1월 5일 지수.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01-05	03-09
종합지수	1,387.18	1,022.71
석탄	1,441.08	1,039.32
곡물	1,464.37	829.87
금속광석	1,521.19	1,029.76
정유	1,521.19	1,264.90
원유	1,541.72	1,541.72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이슈 포커스 :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2017년은 중국의 「13·5 계획」(2016~2020년)의 주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해이자, 물류산업 측면에서는 「물류업 발전 중장기 계획(2014~2020년)」이 절반의 반환점을 맞은 해이다. 이번 호의 '이슈 포커스'는 지난 2017년 중국 물류산업의 주요 성과들을 회고해 보고 이를 통해 2018년 발전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1 2017년 중국 물류산업, 안정적 성장과 뚜렷한 질적 발전

1) 2017년 물류 관련 주요 지표 전년대비 상승, 물류산업 안정적인 발전

앞선 '통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중국의 국가물류비인 '사회물류 총비용'은 전년대비 9.2% 증가했고, 이는 2016년 증가율인 2.9%보다 무려 6.3%p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중국의 전체 '물류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사회물류 총액(Total value of social logistics goods)'도 2017년 전년대비 6.7% 증가하여 2016년 증가율 대비 0.6%p 상승했다¹⁾.

2017년 중국의 화물운송량은 479억 4천만 톤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했다. 도로, 수운, 철도, 항공 및 파이프라인 운송량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특히 도로와 철도운송량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항만물동량도 전년대비 6.5% 증가했으며, 특히 컨테이너물동량은 전년대비 8.3% 증가했다. 택배량도 전년대비 28.0% 증가했으나, 그 증가율은 전년대비 23.4%p 하락하여 거침없이 성장하는 택배업의 성장 속도도 둔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표 1] 2017년 중국 물류관련 주요 통계 지표

구분	단위	실적	2017년 증가율(%)*	2016년 증가율(%)
사회물류 총비용	조 위안	12.1	9.2(6.3 ↑)	2.9
사회물류 총액	조 위안	252.8	6.7(0.6 ↑)	6.1
화물운송량	억 톤	479.4	9.3(3.6 ↑)	5.7
도로운송	억 톤	368.0	10.1(3.3 ↑)	6.8
수상운송	억 톤	66.6	4.3(0.6 ↑)	3.7
철도운송	억 톤	36.9	10.7(11.5 ↑)	-0.8
파이프라인	억 톤	7.9	7.3(2.0 ↑)	5.3
항공	만 톤	705.8	5.7(0.3 ↓)	6.0
항만 물동량**	억 톤	126.4	6.5(3.3 ↑)	3.2
컨테이너 물동량	만 TEU	23,680	8.3(4.7 ↑)	3.6
택배량	억 건	400.6	28.0(23.4 ↓)	51.4

주 : *2017년 증가율에서 ()는 전년대비 증가율 증감 %p ; **규모이상 항만의 물동량으로 규모이상 항만은 물동량 7,000만 톤 이상의 연해 항만과 5,000만 톤 이상의 내하항만을 말하며,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우 200만 TEU 이상의 항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및 교통운수부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KMI 작성

1) 사회물류 총액(社会物流总额, Total value of social logistics goods)은 중국 국내 수요영역에서 화물이 공급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실제 유통에서 발생하는 '가치 총액'으로, **물류비(Costs)의 개념이 아니라, 물류서비스가 필요한 '상품의 총 가치(Total value)'의 개념임**. 일례로, 2017년 중국의 사회물류 총액은 252.8조 위안으로 2017년 중국의 전체 GDP 82.7조 위안보다 3배 이상인 수치로, 사회물류 총액으로 당해 물류시장의 '규모'를 가늠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필자 주.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이슈 포커스 :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동향 & 뉴스

■ 2017년 중국 주요 물류 일지 (계속)

- 5월 1일 : 텐진항은 5월 1일부로 석탄 운송 화물차 반입 금지 발표
- 5월 26일 : 순펑-UPS 홍콩에서 각 500만 USD 출자로 합자회사 설립
- 5월 29일 : 웬통택배 'Global Parcel Alliance' 출범, 세계 50개 기업으로 구성되며 CJ대한통운도 포함
- 6월 1일 : 차이나옌(菜鸟)가 순펑택배와 물류데이터 공유 중단 선언, 차이나옌-순펑간의 물류데이터를 둘러싼 신경전 촉발
- 7월 14일 : 싱가포르 GLP(Global Logistic Properties) 116억 달러에 중국계 자본에 인수
- 8월 7일 : 국무원 '물류 원가절감 및 효율증대의 추진을 통한 실물 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발표, 부담 경감, 원가 절감, 효율 제고가 핵심 내용
- 8월 16일 : 상무부, 재정부 '공급 사슬체계 구축 업무에 관한 통지' 발표, 유통 표준화·정보화·집약화 수준 향상 방침
- 8월 24일 : 중국 배달앱 '얼러머(饿了么)' 경쟁사인 '바이두와이마이(百度外卖)' 인수
- 9월 20일 : 백세그룹(Best Logistics) 미국 나스닥 상장
- 9월 26일 : 교통운수부 '도로 화물 운송 촉진 액션플랜(2017-2020)' 발표, 도로운송 비용 절감 등 추진
- 10월 12일 : 상무부 '창창중류지역 시장 발전 계획(2017-2020년)' 발표
- 10월 13일 : '3동 1달' 선통-웬통-중통-원다택배' 공동 물류 보험회사 설립
- 10월 13일 : 국무원 '공급사슬 혁신 및 응용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 발표, 국무원 판공실 명의로 발표된 공급사슬 관련 최초의 문건

2) 물류기업들의 상장 및 구조조정 활발

2017년 중국의 물류기업, 특히 택배기업들의 국내외 증시 상장이 이어졌으며, 기업 간의 인수합병 및 얼라이언스 결성도 갈수록 활발해 지고 있다. 2016년 이루어진 COSCO와 차이나쉬핑, 초상국그룹과 시노트란스의 합병과 같은 세계가 놀랄만한 '메가 합병'은 없었지만 2017년에도 크고 작은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으며, 주로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택배 및 물류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했다(표 2 참조). 또한 5월에는 중국 최대의 택배사인 순펑택배가 글로벌 물류운송기업 UPS와 홍콩에 합자회사를 설립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으며, 온라인쇼핑몰 JD.COM는 '징둥물류(京东物流)'를 정식으로 설립했다. 11월에는 중국철도총공사의 18개 철도국이 '회사제' 개혁을 완료하며 '공사(公司)'로 개명되었다²⁾. 한편 6월에는 웬통(圓通)택배의 주도 하에 '글로벌 택배 얼라이언스(Global Parcel Alliance)'가 결성되었으며, 우리나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의 50개 택배업체들이 동 얼라이언스에 속해있다.

[표 2] 2017년 중국 물류기업의 주요 인수합병 현황

일시	주요 내용
1월 2일	전자상거래 기업 쑤닝완상(苏宁云商), 42.5억 위안에 텐텐택배(天天快递) 지분 100% 인수
4월 6일	청류연합물류(青旅联合物流), O2O 배송서비스 기업 쉰펑택배(全峰快递) 인수
5월 8일	웬통(圓通)택배, 10.41억 HKD에 홍콩증시 상장기업인 선다국제물류(先达国际物流) 61.87% 지분 인수
7월 14일	부동산 기업 완커(万科) 등으로 구성된 중국권소기업이 116억 USD에 싱가포르 물류 부동산기업 GLP(Global Logistics Properties) 인수
8월 24일	음식 배달앱 얼러머(饿了么), 42억 위안에 경쟁사 바이두와이마이(百度外卖) 인수
8월 28일	도심물류서비스 플랫폼 58쑤원(58速运), 홍콩, 동남아 도심물류서비스 플랫폼 'GOGO VAN'과 합병
9월 13일	순펑택배의 택배보관함운영사 핑차오(丰巢), 8.1억 위안에 택배보관함운영사 중지c찬(中集c栈) 인수
11월 27일	꾸이저우(贵州)성 기반 화물운송 플랫폼 휘처방(货车帮), 장쑤성 기반 화물운송 플랫폼 원만만(运满满)과 합병으로 거대 화물운송 플랫폼 탄생

자료 : SOHU.COM, "2017年物流业8大并购案! 你最看好哪个?", 2017.12.17.

물류기업들의 상장도 이어져, 1~2월, 대형 택배기업인 윈다(韵达)택배와 순펑택배가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특히 순펑택배의 경우 거래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며, 선전증시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그밖에 9월, 백세물류(百世物流)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었다. 물류기업들의 규모화로 인한 시장집중도도 강화되었다. 중국 50대 물류기업의 매출액(2016년 기준)은 8,300억 위안에 달해 전년대비 6.9% 증가했으며, 그 중 50위의 매출액은 28억 5천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6억 위안 상승하였다³⁾. 또한 2017년 말 기준, 중국의 A급 물류기업은 약 5,000개 사로 그중 최고 등급인 5A급 물류기업은 267개 사로 나타났다.

2) 일례로 기존 베이징 철도국(北京铁路局)은 중국철도베이징국그룹유한공사(中国铁路北京局集团有限公司) 등으로 개명됨, 필자 주.

3) SOHU.COM, "2017年中国物流企业50强排行榜", 2017. 10. 26.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이슈 포커스: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동향 & 뉴스

- 2017년 중국 주요 물류 일지 (계속)
- 11월 2일: 10개 부처 공동 '택배업 녹색 포장업무 협동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11월 11일: 중국 싱글데이(11.11) 당일 발생한 택배 주문량 8.5억 건 전년대비 29.4% 증가
 - 11월 15일: 중국 철도총공사 산하 18개 철도국 '회사제' 개혁 완료
 - 12월 20일: 상무부 등 '도농 고효율 배송 전문 프로젝트 액션플랜(2017-2020)' 발표, 도농 배송 네트워크, 집약화, 표준화 등 추진

3) 물류산업 관리제도 지속 개선

2017년 중국에서는 물류산업 관리 제도들이 더욱 개선된 한 해였다. 2017년 8월, 국무원은 「물류 원가절감 및 효율증대의 추진을 통한 실물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推进物流降本增效, 促进实体经济发展的意见)」을 발표하며, 도로운송 법집행 제도화, 통관제도 일체화, 물류분야의 세수정책 개선 등의 27개의 구체적인 정책 조치들을 통해 물류효율 제고 추진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관련 정부부처가 각 산업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용불량 기업 색출 작업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 운송·물류분야에서 270개 기업들의 '블랙리스트'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12월 국가세무총국과 교통운수부 등은 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자영수증에 대한 양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⁴⁾ 2012년부터 실시되어 온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增收改税)'이 교통운송 분야에서 더욱 제도적으로 이행되고 기업들의 세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제도 수정을 지속하고 있다. 교통운수분야에서 행정 절차 간소화, 권한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放管服(放管服, 행정 최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도 지속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 5년 교통운수부에서 하위 기관으로 이양하거나 취소한 행정심사 변동 정도는 6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4) '스마트 물류'의 혁신 발전

인터넷, 빅데이터에 기반한 업그레이드된 물류 모델들이 정부의 장려와 지원 하에 지속 나타나고 있다. 2017년 4월, 중국질검총국, 교통운수부 등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물류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업무 관련 지도의견(关于推动物流服务质量提升工作的指导意见)」은 기업의 IT기술 활용을 통한 업무 모델 혁신 및 빅데이터 운용을 통한 서비스 효율 제고 등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400만 대 이상의 화물 차량들이 '북두GPS장치(北斗定位装置)'를 설치했으며⁶⁾, 다량의 팔레트, 컨테이너 등 물류용기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인터넷+ 화물차량 배차', '인터넷+ 트레일러 운송', '인터넷+ 특수물류' 등 분야에서도 '운송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여 도심 화물운송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차량 스페이스 공유 등 공동배송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휘처방(货车帮, huochebang.cn)' 등으로 대표되는 '무차량운송인(无车承运人, 트럭 브로커)'⁷⁾들은 인터넷 등 IT기술을 이용하여 대량의 화물자원을 통합하고,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LTL 운송 및 트럭 및 화물 터미널 등 자원 공유를 실현하고 있다.

4) 중국 교통운수부·국가세무총국, 「유료도로 통행료 증치세 전자보통영수증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关于收费公路通行费增值税电子普通发票开具等有关事项的公告)」, 2017. 12.

5) 교통운수부, 「2018년 전국교통운수공작회의(全国交通运输工作会议)」에서 발표된 지난 5년간의 성과 중 내용, 2017. 12. 25.

6) '북두GPS'는 중국의 북두위성을 통해 독자 개발한 위성항법시스템, 物流时代周刊, 「机遇与挑战并存 物流行业2018年发展趋势与展望」, 2018. 1. 5.

7) '무차량운송인'은 직접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기업을 지칭하는 '중개인' 개념이며, '무선박운송인(NVOCC)'에서 파생된 중국식 표현임. 중국 국무원은 2016년 8월, 「개혁 및 시범실시로 무차량운송물류 혁신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改革试点加快无车承运物流创新发展的意见)」을 발표하고 10월에 48개의 무차량운송인 시범기업을 발표함, 필자 주.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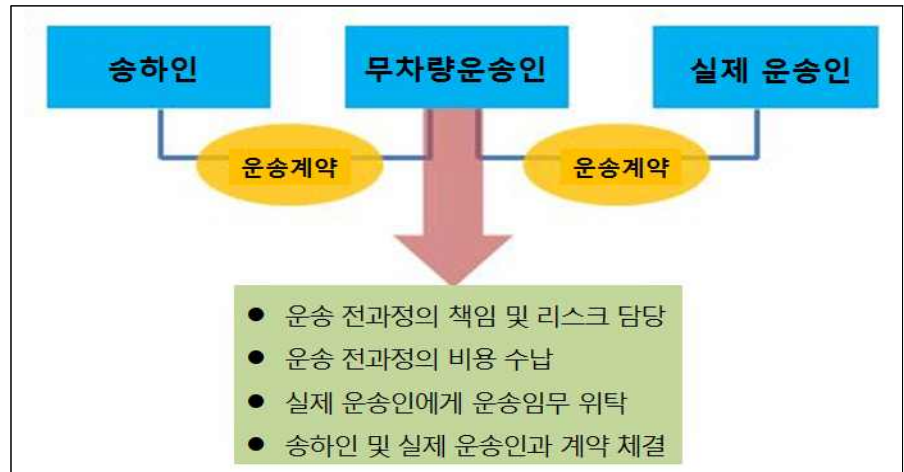
▶ 이슈 포커스 :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동향 & 뉴스

■ 2017년 중국 주요 물류 일지 (계속)

- 11월 2일 : 10개 부처 공동 '택배업 녹색 포장업무 협동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11월 11일 : 중국 싱글데이(11.11) 당일 발생한 택배 주문량 8.5억 건, 전년대비 29.4% 증가
- 11월 15일 : 중국 철도총공사 산하 18개 철도국 '회사제' 개혁 완료
- 12월 20일 : 상무부 등 '도농 고효율 배송 전문 프로젝트 액션플랜(2017-2020)' 발표, 도농 배송 네트워크, 집약화, 표준화 등 추진

[그림 1] '무차량운송인'의 개념도 및 역할



자료 : 바이두백과(baike.baidu.com).

5) 복합연계운송 발전,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

2017년 4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통운수부, 중국철도총공사 등이 「'13·5' 철도 컨테이너 복합연계운송 발전 계획(“十三五”铁路集装箱多式联运发展规划)」을 발표했으며, 복합연계운송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주목하는 전략 사업으로 부상했다. 교통운수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46개의 관련 시범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2017년 9월까지 제1차 16개 시범 프로젝트(2017년 5월 발표)를 통해 140여 개 노선이 개통되었는데 컨테이너 복합연계운송량은 60만 TEU에 달했으며, 약 40만 SCE(Standard Coal Equivalent, 표준석탄환산톤)의 석탄 및 55억 위안의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복합연계운송 허브 건설에서는 교통운수부는 이미 50여 개의 복합연계운송 서비스 기능을 갖춘 물류단지에 대해 자금지원을 실시했다. 중국 전역에서 이미 12개의 철도 ICD가 운영되고 있으며, 70개가 넘는 도시들이 복합연계운송 기능과 세관 기능을 보유한 내륙항 건설을 계획 중에 있다.

화물 집산운송시스템 방면에서 중국의 43개 규모이상 항만이 철도를 통한 화물집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주요 연해·내하 항만들의 철도 인입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컨테이너 수륙연계운송량은 최근 몇 년간 연평균증가율 10% 이상을 보이고 있고, 최근까지 '중어우(中欧, 중국~유럽) 컨테이너화물열차' 노선은 57개가 개설되어, 2017년 누적 2,489회 운행되었으며, 동기대비 121%의 증가율을 보였다⁸⁾. '중어우 컨테이너화물열차'는 이미 국제적인 물류 브랜드가 되었고, '일대일로' 전략 실현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또한 주변국과의 도로 연계운송 인프라도 강화되어, 현재 10개의 변경통상구에 고속도로가, 43개의 변경통상구에 2급 도로가 연계되어 있다⁹⁾.

8) 物流时代周, “机遇与挑战并存 物流行业2018年发展趋势与展望”, 2018. 1. 5.

9) 교통운수부, '2018년 전국교통운수공작회의(全国交通运输工作会议)'에서 발표된 지난 5년간의 성과 중 내용, 2017. 12. 25.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 동향 & 뉴스

6) 콜드체인물류 발전, 식품유통안전 물류품질 보장

2017년 중국의 냉장차량은 13만 4천 톤에 달해 지난 1년 간 1만 9천 대 증가했으며, 냉동창고의 용량은 4,775만 톤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했다¹⁰⁾. 동시에 정부의 정책도 강화되었다. 2017년 8월, 교통운수부는 「콜드체인물류 발전으로 식품안전 보장하여 소비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加快发展冷链物流保障食品安全促进消费升级的实施意见)」을 발표하였고 교통운송 분야의 콜드체인물류 발전에 대한 주요 임무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냉장·보온차량의 온도 관리 성능을 운송시장 진입의 기본 조건을 한다는 방침으로 온도 조절설비 검사 역시 운영 차량의 종합 성능검사에 포함시켰다. 또한 공공서비스형 콜드체인물류단지 건설을 촉진하고 있다. 농산품 공급지, 특히 중서부지역에서 농산물 생산이 많은 지역의 콜드체인물류단지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2 2018년 중국 교통운수분야 주요 추진 사업

2017년 12월 25일 개최된 ‘2018년 전국교통운수공작회의(全国交通运输工作会议)’에서는 지난 5년간의 성과 발표와 함께 2018년도 교통운수분야의 12개의 중점 추진 사업을 소개했으며,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2018년 교통운수분야 중점 추진사업

No.	추진 사업	주요 내용
1	공급측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물류원가 절감 및 종합 물류단지 건설 촉진 - 장거리 벌크운송의 철도 및 수운으로 전환, 복합연계운송 시범사업 확대, 강·해 직항운송 추진 - ‘무차량운송인’ 시범실시 확대¹¹⁾, ‘플랫폼형’ 물류기업과 기업 얼라이언스 지원 강화 -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허가 표준화 작업 및 행정허가의 전면적인 온라인업무 실현 추진
2	교통을 통한 ‘빈곤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도로 표준화 촉진 및 빈곤지역의 사업도로, 관광도로, 자원 운송로 등 건설을 통한 ‘교통운송+ 생태관광, 특색산업’ 등의 빈곤구제 모델 보급
3	국가전략 적극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 협동발전전략’과 연계한 ‘4종4횡1환(四纵四横一环)’의 ‘징진지’ 지역 종합간선 네트워크 개선 및 항만자원 일체화 촉진 - ‘창장경제벨트 전략’과 연계하여 난징 이하 12.5m 심수항로 구축 완료 및 시범운송 추진, 창장 중류 우한(武汉)~안칭(安庆) 구간 6m 심수항로 개선사업 추진, 창장 하구지역의 심수항로의 선박 교차운항 여건 개선을 통한 대형국제크루즈 및 컨테이너선의 진입 효율 제고, 창장 유역의 고속철도와 항만인입 철도 건설 촉진
4	현대화 교통운송체계 건설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강국 건설 강요(交通强国建设纲要)」를 발표하고, 「2021~2035년 교통운송 중장기 발전계획(交通运输中长期发展规划)」 등 및 관련 전문계획 연구에 착수 - 「전국연해항만구도계획(全国沿海港口布局规划)」, 「전국내하항로 및 항만구도 계획(全国内河航道及港口布局规划)」 개정, 「국가 수상교통 안전 감독관리 및 구조체계 계획(国家水上交通安全监管和救助系统布局规划)」 편집 착수 - 도시군에 철도, 도로, 항공 등이 결합된 종합 ‘여객’ 허브 건설

10) 物流时代周, “机遇与挑战并存 物流行业2018年发展趋势与展望”, 2018. 1. 5.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 동향 & 뉴스

5	핵심영역 개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위의 분류 및 개혁, 종합 법집행 시스템 개혁, 항만·공항 공안관리 체계 개혁 등 포함 - 투융자시스템 개혁도 추진, 도로발전펀드 및 도로산업투자펀드 설립 연구 착수,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확대 - 도로운송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신용체계 구축, 신용등급에 따른 '상벌' 체계를 보완
6	교통운송 법집행 제도 구축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교통안전법(海上交通安全法)」, 「도시공공교통관리조례(城市公共交通安全管理条例)」, 「철도사고 긴급구조 및 조사·처리 조례(铁路交通事故应急救援和调查处理条例)」, 「해상교통안전법(海上交通安全法)」, 「택배 잠행조례(快递暂行条例)」 등 발표 추진 - 「유료도로 관리조례(收费公路管理条例)」, 「도로운송조례(道路运输条例)」 개정, 「해상법(海商法)」 개정 및 「종합교통운송 촉진법(综合交通运输促进法)」의 입법 작업 추진
7	혁신형 교통운송업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운전차량, 무인선박 관련된 선도기술 및 무인운전차량 관련 정책제도 연구, 보조 자동운전기술의 상업운영 차량 시범응용 추진 - 북두GPS시스템' 보급 확대, 국가 교통관리네트워크, 스마트 도로, 스마트항만, 스마트물류, 교통관광 빅데이터 등 시범사업 전개 - 고속도로 전차요금징수(ETC) 전용 차도 2,000개 증설하고, 사용자 대폭 증가
8	녹색교통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버스 및 지하철의 저탄소 운행방식 비중 제고, '교통카드(一卡通)' 사용 확대, 220개 도시에서 '교통카드' 지불방식 실현 - 항만자원 통합 및 집약적인 이용을 위해 지역 항로, 묘박지 등 공동사용 촉진 - 항만과 공항서비스, 도심 공공교통, 물류배송, 차량 임대, 우정택배 등에서 신에너지 차량 이용 확대, LNG선박의 보급 촉진, 항만의 육상전력공급설비(AMP) 구축을 대폭 확대
9	교통운송 분야 국제 영향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들의 해외 교통인프라 건설 및 운영관리 지원 - 국제 협력 및 장비, 기술, 표준 등의 '해외 보급' 촉진을 통한 글로벌 교통운송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
10	안전한 교통생산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의 중점선박(여객, 위험물, 유동성고체화물, 모래·자갈 운반선)', 항만 위험물 작업 관리 등 강화 - 수상구조 작업 및 해상 기름유출 사고 관련 법안 등을 수립
11	산업 소프트웨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 육성 강화, 교통운송 관련 새로운 형태의 싱크탱크 설립 추진 - '신시대'의 교통문화를 배양하며,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교통발전 성과 홍보 추진
12	'종업지당' 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문화 수립 및 기율 강화, 부패 척결 등 적극 추진

자료 : 교통운수부, '2018년 전국교통운수공작회의' 중의 2018년 주요 업무 내용, 2017. 12. 25.

3 2018년 중국 물류산업 전망 및 의미

상술한 2017년 중국 물류산업 발전 성과들과 지난 '2018년 교통운수공작회의'에서 제시된 올해 교통운수부의 중점 사업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2018년 중국의 물류산업 전망과 2018년이 가지는 의미는 아래와 같다.

1) 현대화된 공급사슬 발전의 원년

2017년 10월 18일 개막된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보고에서도 '현대화된 공급사슬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당 대회 개최 전인 2017년 10월 13일, 국무원은 「공급사슬 혁신 및 응용 적극

11) 2018년 2월 12일, 교통운수부가 발표한 「무차량운송인 시범실시 협력기업 명단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미 229개의 무차량운송 기업이 시범기업 명단에 추가되었음, 필자 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 동향 & 뉴스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여기서 중국 정부는 공급사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20년까지 중국의 중점 산업의 스마트 공급사슬 구축을 통해 원가절감과 효율제고를 동시에 실현하며, 100개의 글로벌 공급체인 기업 육성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토대로 하여 2018년은 중국의 현대화된 공급사슬 발전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중국은 정보화, 표준화, 신용체계 구축 및 인재 육성을 중점으로 한 공급사슬의 신개념, 신기술, 신모델 혁신 발전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공유 등의 스마트 공급사슬 체계 구축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게 될 것이다. 공급사슬의 혁신과 응용을 통해 산업 간의 융합 및 분업을 촉진시키고, 기업 경영원가를 절감시키며, 수요에 정확히 맞춘 생산 및 산업 고도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교통물류 관련 기업이 글로벌 공급체인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촉진할 것이다.

2) 개혁혁신 및 ‘원가절감’ 가시화

2018년은 작년 국무원이 발표한 「물류 원가절감 및 효율증대의 추진을 통한 실물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推进物流降本增效促进实体经济发展的意见)」이 심화 추진되는 해이자, 2016년 발표된 「물류 원가절감 및 효율증대의 추진을 통한 실물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物流业降本增效专项行动方案(2016-2018))」의 마지막 해이다. 이런 관계로, 중앙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물류 원가절감은 2018년에 더욱 추진되고, 그 성과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운수부는 실질적으로 산업에서 물류원가 절감 및 효율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개혁 심화 및 혁신 조치를 확대하고, 도로의 중량물 운송 관련 행정수속을 간편화시킨다. 온라인을 통한 행정 처리를 적극 장려하고, 고효율의 복합연계운송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운송구간 확장을 진행하고, 주요 항만, 대형 종합 물류원구 운송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라스트 1km’ 문제를 해결하여 내외의 복합연계운송 네트워크 체계가 끊김 없이 연계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3) 친환경 녹색발전 및 복합연계운송의 촉진

환경오염 심화로 인해 중국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친환경 녹색 발전’은 중점 화두이다. 2018년은 녹색교통 및 저탄소물류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해이다. 2018년은 교통운수부가 2017년 발표한 「녹색교통 발전 심화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全面深入推进绿色交通发展的意见)」이 추진되는 첫 해이다. 동 「의견」에서는 복합연계운송 비중을 제고하여 대용량 디젤 화물차의 벌크화물 적재 장거리 운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물류 분야에서 LNG 등 친환경 연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사용 차량 수량을 60만 대까지 늘리고, 도로화물차량의 표준화 비율을 80%까지 제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내하수운에서 LNG 연료 사용 비중을 2015년 대비 200% 증가시킨다는 목표이다. 항만, 공항 및 물류단지의 하역 및 운송장비의 전기화 및 LNG 개조작업도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 동향 & 뉴스

친환경 운송 및 효율제고 등과 연계되어 복합연계운송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양한 운송수단 및 간선·지선이 연계되는 화물운송 물류단지 건설이 확대될 것이며, 농촌지역에서는 교통·우정·유통 등 기능과 자원이 통합된 ‘멀티 터미널’이 물류거점으로 건설될 것이다. 또한 철도 택배 상품 개발이 장려됨에 따라, 철도가 택배배송의 새로운 운송모델로 부상할 전망이다.

4) 스마트 물류와 물류 전문화·표준화 촉진

중국의 물류산업은 ‘인터넷’을 활용한 업무 혁신이 촉진되고, ‘무차량운송인’ 시범실시 확대에 따라 ‘공유물류’의 개념이 보편화되며, 화물차량의 공차율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운송장비 전문화·표준화도 지속 강화된다. 화물차량의 표준화, 탑차화(厢式化), 경량화를 전면 추진한다. 오픈탑 컨테이너, 탑차 트레일러 등 표준화된 운송차량이 더욱 보급될 전망이다.

4 시사점

2018년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는 해이다.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의 물류산업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류인프라의 과잉공급, 환경오염 심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물류산업은 질적 발전에 더욱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7년 개최된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현대화 경제 체계 건설’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교통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실제로 중국 교통인프라 건설 및 리모델링, IT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의 발전,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공급사슬관리(SCM) 역량을 볼 때, ‘교통강국’을 넘어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

특히 날로 발전하는 IT기술을 바탕으로 물류 정보화의 발달은 ‘무차량운송인’ 등의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했고, 중국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버코리아’를 대표로 공유물류 비즈니스 모델이 생활 속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우버 택시가 ‘규제와 반대’로 정착하지 못한 점을 비추어 볼 때 활성화되기에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식 관리가 보편화 되어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융통성 측면에서 볼 때, 올해 기본 골격이 나타나는 중국식 ‘자유무역항’은 과연 기존의 ‘자유무역시범구’와 다른 어떠한 수준의 개방 정도를 보일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중국의 IT 기술과 융합한 물류기술 및 플랫폼식 공유 물류의 경영 노하우는 이미 높은 수준에 달했다고 보여지는 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중국 진출 혹은 기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 동향 & 뉴스

또한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일대일로’ 전략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 촉진 등도 우리나라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계 시장 진출 및 네트워크 확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이미 국내 물류시장이 포화에 달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및 자금지원(국제물류펀드 등)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도 세계 시장에서 중국 물류기업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지만, 또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특히 신뢰 관계가 전제가 된다면, ‘일대일로’ 전략과 함께 제3세계에 진출 계획인 중국 물류기업과 합자 등의 방식으로 공동 진출한다면, 양국 화물유치를 통해 현지에서의 ‘바게닝 파워’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세원 전문연구원·김형근 센터장
kmishanghai@naver.com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경제 · 정책

- 상하이 자유무역항의 정책방향 : 역외무역과 중계무역 병목 해결
- 발전개혁위원회 : 2018년 자유무역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범위 전국으로 확대
- '양회' 정부업무보고, 자유무역시범구 노하우를 응용하여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
- 2017년 중국 철강 생산능력 5,000만 톤 이상 감소, 석탄 과잉 생산능력 2.5억 톤 해소
- 쑤이펀허(绥芬河)통상구 1월 양국 수입량 6,000톤 기록, 무역액 1,101.1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244.9% 대폭 증가

해운 · 항만 · 물류

- 초상국항만, 브라질 2위 항만 인수
- 샤먼시(厦门市), 중국 첫 번째 동남아 6개 국가를 기항하는 일대일로 크루즈 노선 출범
- 충칭항무물류그룹, 창장 상류 내륙 국제물류허브 구축 계획
- CHINA MERCHANTS GROUP, 이창시(宜昌市) 정부와 전략적 제휴 협의 체결
- 산둥성 올해 연해 항만 10개 선석 증설 및 경항(京杭)대운하 후시(湖西)항로 착공 계획
- 샤먼, 지속적인 개혁혁신으로 자유항 건설 모색
- 2017년 장쑤성, 철도·수로·항공 복합운송투자액 1,100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

- COSCO Shipping Ports, 1월 컨테이너물동량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
- 1월 창장삼각주 컨테이너물동량 전년 동기대비 6% 증가
- COSCO Shipping과 허베이항만그룹과 주식투자 펀드(FOF) 개설

해양 · 수산

- 랴오닝성, 다섯 가지 조치로 '해양 생태적 관리' 추진
- 닝링(宁陵) 전국인민대표, 광둥성에 해양 제5연구소 설립 제안
- 전국인민대표 뤼채사(吕彩霞) 건의 : 남극활동 관련 법 수립 서둘러야
- 셰징(谢京) 전국 정협위원(政协委员) : 하이난성을 '해양 강성(省)'으로 건설하기 위해 국가심해실험실 설립 필요
- 뤼채사(吕彩霞) 전국인민대표 건의 : 도서 부두 건설 중시해야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1 상하이 자유무역항의 정책방향 : 역외무역과 중계무역 병목 해결

제28회 화동(华东) 수출입상품 교역회가 3월 1일 상하이에서 개최됐다. 상치(桑琦)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부검사관은 당일 개최된 화동 수출입무역포럼에서 상하이시 상무위원회는 상하이자유무역항구의 전체 기획, 기능설계와 제도개혁에 있어서 상하이 세관, 상하이 출입국검역검사, 외화관리 상하이시국 등 기관과 함께 ‘화물이동 자유, 자금이동 자유, 인력이동 자유’의 구상을 제시했다. 또한 자유무역항 건설을 계기로 역외무역과 중계무역의 병목문제 해결을 추진하여 국제 규제 제정능력을 제고할 것을 언급했다.

화동 수출입상품 교역회는 ‘새해 첫 대형행사’로써 중국 대외무역의 ‘바로미터’라고 불리고 있다. 상치 부검사관은 회의상에서 경공방직산업(轻工纺织行业)에 있어서 상하이는 국가무역강국 건설의 과정에 있어 이하 6개 부문에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첫째, 무역편리화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경공방직산업의 대외무역구조를 개선한다. 셋째, 경공방직산업의 대외무역방식을 개선한다. 넷째, 경공방직산업의 전 세계 가치체인상의 위치를 제고한다. 다섯째, 국제가격책정능력을 제고한다. 여섯째, 국제규칙제정능력을 제고한다. 이중 경공방직산업의 전 세계 가치체인 상의 지위 제고에 관해 그는 상하이는 국무원 발표의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개혁개방방안의 전면적 심화」 정신에 입각하여 상하이 자유무역항 건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가 각 부문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유무역항의 집중관리감독 체계와 구항(区港) 일체화 운영체계, 안전하고 효율적인 위험관리체계, 정보화 서비스체계 및 상응하는 법률보장체계를 형성하고, 상하이 자유무역항 중계무역과 역외무역 기능 개선을 통해 경공방직산업의 중계무역과 역외무역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국제적 가격책정능력 제고에 대해서 상치 부검사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상하이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와 자유무역항을 결합하여 현재의 현물시장을 전체 산업 체인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서비스체인으로 확장하고, 물류와 금융서비스체계를 완비하여 국제적 벌크 원자재상품 현물교역 시장 건설에 박차를 가해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보세교역과 비보세교역, 일반무역과 중계무역의 연동발전을 실현하도록 한다. 투자자 국제화, 교부업무 국제화, 가격책정능력 국제화를 실현함으로써 중국시장의 국제적 영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중국의 벌크 원자재상품 교역 중 가격책정능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상하이는 첫 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맞이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구매 연맹을 구축할 것이다. 상치는 금년 수입박람회의 개최는 상하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출입무역에 중요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하이는 왕이카오라, 텐마오 글로벌, 징둥, 샤오홍슈, 양마터우 등 국내 유명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구매 연맹을 구축하여 국외 박람회 참가기업들을 위해 중국 시장 진입에 있어 ‘6+365’ 윈스탑 글로벌 전자상거래 교역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채널에 적합한 상품에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상품의 판매채널 우위를 알려 상품 가격 책정의 발언권을 제고시킬 것이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 동향 & 뉴스

2 발전개혁위원회 : 2018년 자유무역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범위 전국으로 확대

닝지저(宁吉喆)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国国家发改委) 부주임(副主任)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은 외국투자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개정하고, 현재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외국투자자 네거티브리스트를 전국 범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자기업과 중국 현지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고 외자기업의 지적재산권과 합법적인 권익을 엄격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3월 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닝지저 부주임은 2017년 중국이 유치한 FDI는 총 1,310억 달러로 세계 2위를 차지했고, 개혁개방 40년 동안 외국자본은 이미 중국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 밝혔다.

닝지저 부주임에 따르면, 수출입 부분에서 외자기업의 수출입 비중은 중국 전체 수출입의 50%에 육박하고, 중국 전체 공업생산액의 25% 및 중국 세수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의 취업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고속 성장은 외자기업의 성장에도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였고 윈·윈을 실현하며 공동 성장하였다.

닝지저 부주임은 UNCTAD 조사 결과를 빌어 현재 중국은 외국기업 투자지역 선호도에서 2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세계 FDI 유치 규모 순위와 동일하다고 소개했다. 또한 2018년 1월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발표한 2018년 중국 비즈니스 환경 조사에 따르면, 76%의 회원기업이 중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닝지저 부주임은 중국의 투자환경 개선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이 부분에 있어 여전히 공을 들여 훌륭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개 부분의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시장진입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2018년, 발전개혁위원회와 국무원 관련 부서는 공동으로 외국자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하고 그 시범 실시 범위를 기존 자유무역구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서비스산업 개방수준을 제고하고 일반 제조업을 개방하며 일부 분야에서 실시하던 외국자본의 주주권 비율 제한을 없애고 경영범위에 대한 제한도 완화한다.

둘째, 투자 편리화를 추진한다. 외자기업 설립 수속을 간소화하고 공상등기(工商登记)와 상무준비(商务备案)를 단일창구를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업의 생산경영 관련 심사를 간소화하고 소방, 환경평가, 토지사용 심사, 수도·전기가스 연결, 수출입 세관 통과시간을 축소 혹은 단축시킨다. 외자기업과 국내기업의 공정경쟁을 추진하고 외자기업의 지적재산권과 합법적 권익을 엄격히 보호한다. 나아가 외국자본 관련 기초법안을 제정한다.

셋째, 외자유치를 장려한다. 서부지역, 내륙지역, 국경지역 개방을 확대하여 중서부지역, 동북지역으로 이전하는 외국기업에게는 국가 핵심산업 이전 및 가공무역활성화 지원금을 지급하고, 토지사용 특혜정책을 제공한다.

지방정부가 법률적 범위 내에서 외국계 투자유치를 위한 특혜정책 실시를 허락한다.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창출한 이윤을 다시 중국에 투자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구의 노하우를 보급하고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 동향 & 뉴스

3 '양회' 정부업무보고, 자유무역시범구 노하우를 응용하여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

3월 5일 오전,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1차 회의가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고, 국무원의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이하 「보고」)를 낭독했다. 「보고」에서는 전면적인 개방의 신국면 추진이 언급되었고, 개방의 범위 및 수준을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해 개방구조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질적 발전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면적으로 자유무역시범구의 노하우를 응용하여 자유무역항을 건설하여 개혁개방의 새로운 '요충지'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이에 대해 바이밍(白明) 중국 상무부 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부 부주임은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유무역시범구의 노하우를 전면적으로 응용하여 무역과 투자 자유화·편리화를 촉진하여 전면적인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에서는 대외무역의 원활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수출신용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체 통관시간을 3분의 1로 더욱 단축해야 한다는 사항을 언급했다. 「보고」상의 발표에 따르면, 과거 5년간 화물 통관시간은 평균 절반 이상이 단축됐다고 한다. 바이밍 부주임은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계효율이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은 무역 편리화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통관 과정에서의 지연을 줄이고 효율을 제고하여 교역 성립의 기회가 증가된다면 계약 이행률도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기업의 효율 제고를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통관·검역에서의 협력, 무서류 작업, 단일창구 등의 조치들이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밍 부주임은 통관시간 단축이 중국의 입체적 개방 실현을 방증한다고 강조하고, "중국 개방의 개방은 '횡적 개방'에서 '종적 개방'으로 나아가고 있다. '횡적 개방'은 개방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것이며 '종적 개방'은 개방의 수준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통관시간의 3분의 1 단축은 질적 성장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무역편리화 연도보고(2017)」(「편리화 보고」)에 의하면, 2017년 중국 무역편리화 수준은 총점 73점으로 국제적으로 중상위권 수준에 속한다. 중국 통관, 중국검역기관은 통관일체화를 추진하면서 행정비용을 면제하거나 절감시키고 있고, 단일창구, 무서류 통관, 국경담당 기관과의 협력, 'AEO제도'¹²⁾, 세관 통관시간 공개, 통관과 세금징수 분리 등의 측면의 무역 편리화 조치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외자투자의 촉진 또한 언급되었다. 국제통화의 경제무역 규칙과 연계하여 세계 일류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 중 외자기업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신고 및 등기의 '원스톱 처리'가 강조됐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밍 부주임은 '원스톱 처리'는 '광관부(放管服 : 행정최소화와 권한이양) 개혁을 실천하는 것이고 무역 편리화 및 투자 편리화를 제고하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밍 부주임은 '원스톱 처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작업효율을 제고하여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기존에는 수차례 방문하며 처리해야 했던 일을 현재는 규정에 부합하는 자료 제공만으로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광관부' 개혁은 실질적으로 정부 기능의 변화를 의미하고, 정부가 관리기능뿐만 아니라, 정부의 작업효율을 제고하는 것이다. 정부의 서비스는 정부 기능이 개인, 기업, 사회 서비스라는 본연의 역할로 회귀함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12)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국제무역기구(WTO)의 가입국이 자동으로 가입하는 국제관세기구(WCO)에서 9·11테러 이후 제정한 제도로서 세계 각국의 세관(해관)에서 수출입 기업이 내부 통제, 법규 준수, 무역 안전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통관절차 등의 편의를 부여하는 제도임.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 동향 & 뉴스

최근 들어 ‘증명서류 간소화’, ‘영업집조 및 경영허가증 분리’ 등을 통해 기업이 관련 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여 행정 처리하는 과정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 각 지역 자유무역시범구는 네트워크 기술과 정부서비스의 결합으로 ‘위챗(한국·카톡)과 같은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허가서발급’, ‘온라인 허가서 발급’, ‘빅데이터+인공지능정부서비스’ 등 편리화 조치를 실행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또한 ‘광관판’ 개혁의 심화가 언급되었는데, 시장진입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영업집조¹³⁾와 경영허가증 분리’ 개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행정처리 시간을 더욱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자료 : 每日经济新闻, 2018. 3. 6.>

4 초상국항만, 브라질 2위 항만 인수

중국 초상국그룹은 자회사인 초상국항만이 브라질 파라나과(Paranagua) 항만(TCP)을 순조롭게 인수했음을 발표했다. 금번 인수는 브라질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었으며, 초상국항만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진행한 최초의 항만투자 사업이자, 최초로 해외 기 운영 중인 항만의 지배지분을 확보한 사례가 됐다. 이로써 TCP는 정식으로 초상국항만에 소속되며, 이는 초상국항만이 해외항만 분포 구도가 전 세계 5대주를 모두 포괄하여 세계 일류 항만종합서비스 기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결실을 내딛었음을 의미한다.

TCP는 현재(설계 처리능력 150만 TEU) 혹은 향후 단기간 동안(2019년 240만 TEU까지 확장) 브라질 제2대 컨테이너부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TCP는 브라질 최대 냉장·냉동 컨테이너 수출 부두이기도 하고, 브라질 수출입의 컨테이너의 10개 중 1개는 TCP부두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TCP 인도 체결식이 브라질 연방상원에서 진행됐다. 초상국항만 대표 바이징타오(白景涛) 총경리는 인수자를 대표하여 교부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리진장(李金章) 주브라질연방공화국 중국대사, Willington Fagundes 브라질연방참의원 겸 운송물류와 창고 위원회 주석, Mauricio Quintella 브라질 교통운수 겸 항만과 민항부 부장, Richardo Barros 브라질 교육위생부 부장, Marcelo Roque 파라나과시 시장, 후젠화(胡建华) 초상국그룹 부총경리이자 초상국항만 이사회 부주석, Luiz Antonio Rodrigues Alves TCP 수석집행관 등 50여명의 양국 내빈이 행사에 참석했다. 행정담당자 및 내빈들은 TCP사업의 전략의미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중국-브라질 경제무역협력의 전망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는 브라질 연방참의원이 최초로 비즈니스 투자사업을 위해 개최한 축하 및 토론 활동이기도 했다.

13) 중국의 ‘영업집조’는 국가기관인 ‘공상행정관리총국’ 산하 지역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동 문건의 발급일이 ‘법인성립일’임. 한국의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세적(납세인의 호적)을 말함. 그러나 중국에서 이와 동일한 문건은 관할 세무국에서 발급하는 ‘세무등기증’임. ‘영업집조’가 발급되지 못하면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등기증은 존재할 수 없음.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우리나라의 상영등기소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곳에서 발급해 주는 ‘영업집조’는 우리나라의 ‘법인등기부등본’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① 영업집조, ② 조직기구대마중, ③ 세무등기증 3건의 문건이 통합 발급되는 이른바 ‘3중합일’ 정책을 국무원이 발표함으로써 ‘영업집조’ 발급만으로도 세무등기증이 발급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개념상 다소 혼란이 있을 수는 있음. 하지만 ‘영업집조’가 ‘세무등기증’의 기능을 흡수한 형국이므로 한국의 ‘사업자등록증’과 중국의 ‘영업집조’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개념임(<http://cafe.daum.net/kichina/NXEQ/189?q=%C1%DF%B1%B9%C0%C7%20%BF%B5%BE%F7%C1%FD%C1%B6>).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 동향 & 뉴스

리진장 중국대사는 “금번의 항만 인도는 2018년 중국-브라질 간 경제무역협력의 좋은 출발을 상징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초상국은 우수 기업이라고 언급한바 있고, 본인은 이러한 우수기업이 브라질에 투자함으로써 중국-브라질 경제무역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임을 믿는다.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중국-브라질 쌍방의 밀접한 협력 하에, TCP의 내일은 더욱 더 밝을 것이다.”고 밝혔다.

후젠화 부주석은 “중국과 브라질은 오래된 무역국이며 쌍방은 이미 좋은 우호관계를 확립했다. 2017년 중국은 브라질의 제1 수출국이자 제1 수입국이다. 양국은 밀접한 국제경제무역관계에 있으며, 브라질의 장기 투자협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초상국은 중국민족공상업의 선구자이고, 국가의 ‘일대일로’ 슬로건 아래 해외발전 전략의 중요한 실행자이고, 현재 전세계 20여개 국가 및 지역에 52개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만을 허브로 적극적으로 ‘항만, 지역, 도시 순으로 발전(前港-中区-后城)’하는 ‘셔코우(蛇口) 모델’을 적용하여 산업과 도시의 협동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추가 언급했다. 향후 초상국 그룹은 TCP를 기점으로 브릭스 국가와 경제무역협력을 지속하고, 특히 브라질 중합물류, 교통기초, 원구개발 등 영역에서 연구하고 더 많은 투자와 개발 및 운영기회를 도모할 계획이다.

바이징타오 총경리는 “초상국항만은 중국 최대, 세계 유수의 컨테이너항만 개발, 투자, 운영업체이다. 2017년 컨테이너물동량은 1억 TEU를 돌파했다. 이중 해외투자의 스리랑카 CICT 사업 및 지부티의 항만사업 등 해외사업은 모두 현지 정부와 국민의 인정을 받은 벤치마킹 사례로, 사회적 이익과 현지 새로운 산업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 우리는 브라질 TCP도 공영발전의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TCP의 정식 인도 후,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초상국항만은 TCP 를 새로운 기점으로 브라질과 상호 협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공영발전을 실현하고, 중국-브라질 상호협력에 더욱 찬란한 성과를 이룩할 것이다.

2017년 9월 4일 거행된 제3차 브릭스국가 지도자포럼 기간 초상국항만은 TCP측과 지분매수협의를 마쳤다. 거래가는 2,891,250,227.92레알(72.28억 HKD)로 브라질 파라나과항만 운영상 TCP 90%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 거래는 초상국항만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일대일로’전략을 새롭게 펼친 것으로써 추후 중국-브라질 경제무역과 양국 전면적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TCP는 브라질 동남연해의 파라나주에 위치한 브라질 2대 컨테이너항만으로 브라질 최대 항만인 산토스항에서 약 280km 떨어져 있다. TCP 경제배후지는 브라질 동남측으로 가장 중요한 연해지대를 포괄하는데, 이 연해지대는 브라질 전국 45%의 인구 및 GDP의 47.6%가 집중되어 있다. TCP는 도로 및 철도를 통한 운송조건이 뛰어나고, 브라질 남부 유일의 철도가 항만에 직접 연결되는 곳이기도 하다. 부두에는 현재 3개의 컨테이너선석이 있고, 연간 처리능력은 150만 TEU로 설계되어 있으며, 확장 후에는 240만 TEU가 될 것이다. 부두독점 운영기간은 2048년까지이다.

<자료 : 招商局集团, 2018. 2. 26.>

5 샤먼시(厦门市), 중국 첫 번째 동남아 6개 국가를 기항하는 일대일로 크루즈 노선 출범

2018년 2월 24일, 푸젠성(福建省)해운·항만관리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캄보디아 및 베트남의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연결하는 크루즈노선이 3월 8일 샤먼에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동남아 6개 국가를 연결하는 일대일로 크루즈 노선이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 동향 & 뉴스

푸젠성해운·항만관리국(福建省港航管理局)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해당 노선은 Costa neoRomantica호가 운행을 담당하고 2항차로 운영할 예정이다.

샤먼크루즈모항은 중국 4대 크루즈모항 중 하나로 중국에서 지정한 크루즈운송시범항이다. 2016년부터 샤먼크루즈모항은 일대일로 노선을 시도하기 시작하였고 작년 하반기에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차례로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에 이르는 크루즈노선을 개통했다.

샤먼항만관리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샤먼항에 입항한 국제크루즈는 총 77회이고, 총 승객 수는 16만 1,800인차이다. 이는 ‘선 샤먼관광, 후 크루즈 탑승’이라는 샤먼관광의 새로운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출범한 동남아 노선은 기존 노선 이외에 필리핀, 베트남과 아울러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캄보디아 등 국가도 연결함으로써 샤먼시 크루즈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노선 출범 외에도 샤먼크루즈모항은 일류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여 크루즈산업체인을 발전시켜 글로벌 크루즈의 입항을 격려한다.

<자료 : 中国新闻网, 2018. 2. 24.>

6 충칭항무물류그룹, 창장 상류 내륙 국제물류허브 구축 계획

충칭항무물류그룹(重庆港务物流集团)에 따르면, 충칭 귀원항(果园港)은 ‘스마트항만’ 구축에 매진하고 있고, 2019년 창장 상류 첫 전자동화터미널이 완성될 가능성이 크다. 충칭항무물류그룹은 내륙 국제물류허브 건설이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금년 귀원항은 컨테이너부두와 야적장 스마트화 개조를 추진할 것이고 귀원항 벌크 벨트식 컨베이어 설비 구축을 완성하여 항만의 스마트화 작업, 협력 연동을 강화하여 원거리 조작과 자동화·무인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어교통운수부 창장항무관리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창장 간선 화물 통과량은 25억 톤에 달해 세계 내륙수운 운송량 1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충칭항은 창장 중상류지역에서 최대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형항만으로서 주변 ‘성·시’ 화물의 충칭항을 통한 환적 물동량이 충칭시 전체 항만물동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충칭시의 90% 이상의 대외무역 화물운송이 수운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충칭의 창장상류해운센터 건설을 견인하고 있는 충칭항무물류그룹은 창장유역 충칭 구간 600km 해안선 범위 내 컨테이너, 중대형화물, 화공, 여객운송 등 선석 181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그룹의 연간 총 물동량, 컨테이너물동량 및 Ro-Ro 처리능력은 각각 9,607만 톤, 423만 TEU, 181만 대에 달한다. 또한 귀원항만구역, 란자톈(蓝家沱), 마오얼톈(猫儿沱), 지우룽포(九龙坡), 완저우홍시거우(万州红溪沟) 등 5개의 철도·수운 복합운송 항만구역을 보유하고 있고, 철도전용선로는 39km, 철도의 연간 물동량 처리능력은 3,000만 톤에 달한다. 충칭항무물류그룹은 창장 상류의 현대화된 항만군 구도 배치를 통해 내륙국제물류허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귀원항에서는 2016년 1월, ‘중신(中新, 중국과 싱가포르) 충칭 전략성 상호연결’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시범사업 핵심구역은 양강신구(两江新区)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귀원항이 시범지역 중 하나였다. 2017년 4월, 충칭 자유무역시험구가 시작되면서 귀원항 구역은 충칭 자유무역구 3대구역 중의 하나가 되었다. 2017년 12월, 중국-유럽(4충칭) 국제화물열차의 첫 출발이 귀원항에서 시작됐다. 동 노선은 귀원항 철도 전용선을 통해 독일 뒤스부르크까지 연결되었다. 이로써 귀원항은 중국 서부지역에서 최초로 ‘창장경제벨트’와 중국-유럽 정기열차(충칭)의 수운·철도 국제복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 동향 & 뉴스

합운송이 직접 연계된 항만되면서 명실공히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의 교차점으로 부상하였다. 충칭은 해상까지 연결 거리가 2,400km가 넘는 ‘단점’을 보완하고 양강신구(两江新区), 더 나아가 충칭시를 기존의 ‘내륙 경제배후지’에서 ‘개방의 전초기지’로 변화시켰다.

2017년 충칭항무물류그룹은 총 물동량 6,096만 4천 톤, 컨테이너물동량 113만 2천 TEU, Ro-Ro 물동량 39만 9천 대를 달성했다. 내륙수운-해상수운과 육지경제를 연결하는 충칭항은 전 세계 물류공급체인의 중요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철도는 도로보다 20~30%, 수로는 철도보다 50~60% 저렴하다. 평리광(冯立光) 교통운수부 운수서비스사(司) 종합운수서비스처 부처장에 따르면, 현재 단계 만약 중국의 사회화물운송량의 비중 중 복합운송량 비중이 1%p 오른다면 사회 전체 물류 총비용이 0.95%p 낮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1,000억 위안 정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충칭 경제발전의 전초기지로서 양강신구 충칭장베이(江北) 국제공항(공항), 양루춘탄(两路寸滩) 보세항구역(보세항), 룡터우스(龙头寺) 기차역·귀웬항 항만진입철도전용선(철도항), 전자정보·클라우드컴퓨팅·빅데이터산업(정보항), 귀웬항과 춘탄항(수운항)의 ‘5개 항’(공항, 보세항, 철도항, 정보항, 수운항)이 교차하고 있다. 유형의 교통허브와 무형의 빅데이터 온라인 기반 허브가 서로 융합하여 고효율의 화물복합운송전 과정에서 ‘인터넷+물류’와 ‘싱글 시스템’ 운송서비스를 추진하고 국제물류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충칭은 여러 복합운송 병목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충칭항 수운통상구 귀웬항 작업구 대외개방 가능성 연구보고」가 국무원에 정식 보고 되었고, 올해 상반기 중 귀웬항의 대외개방에 힘을 쓸 것을 강조했다. 현재 귀웬항은 적극적으로 수입 식품, 목재, 식물묘종, 약품 등의 ‘지정 통상구’ 기능 확충을 적극 신청하고 있고, ‘복합운송시범사업’구축에도 치중하고 있다. 귀웬항 복합운송 감독관리센터의 건설을 촉진하여 귀웬항 수출입화물의 빠른 통관모델을 구축하고 복합운송 무역편리화를 제고하여 다양한 운송방식 간 자유로운 융합을 실현하고 있다.

복합운송이 가져온 물류비용의 감소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6월 말, 충칭항무물류그룹과 산시(陕西)석탄산업화공그룹 등 10여개 기업은 충칭서부 벌크상품 현물교역시장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강재, 석탄, 철광석 등 상품에 대해 충칭 및 서부지역의 물류공급체인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산시석탄산업화공그룹 산하 산시강철그룹은 매년 브라질, 호주 등 국가로부터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는데, 귀웬항에서 환적하여 철도로 ‘한중(汉中)제강’까지 철도수운복합운송 방식으로 운송될 경우, 기존 해상운송을 통해 북방 연해항만으로 도착하는 방식에 비해 톤당 40~50위안의 물류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강신구는 내륙 최초의 국가급 개발개방신구로써 국무원으로부터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개혁시험의 선행지역 내륙 주요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 기지, 창장상류 지역의 금융중심 및 혁신중심, 내륙지역 대외개방의 중요 관문, 과학발전의 시범창구’ 등의 전략 포지션을 부여받았다.

양강신구 산하의 직속 기업으로써 충칭항무물류그룹은 ‘산업과 도시 융합, 산업으로 도시 부흥, 도시를 통한 산업촉진’이란 발전이념을 바탕으로 ‘양강투자그룹(两江投资集团)’과 사업협력을 강화하여 귀웬항 및 주변지역의 산업과 도시를 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항만과 도시가 융합 발전하는 현대화된 항만구역을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항만, 즉 충칭항무물류그룹은 항만 현대화의 주요 수단으로 스마트 게이트, 원거리 조작기술, 스마트 화물 검수·분류, 스마트 모니터링 등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 동향 & 뉴스

그 예로 귀웬항은 이미 TD-LTE(4G)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장 상류지역 최초 항만전용 무선단말기와 TD-LTE 브로드밴드 시스템이 항만 전체에 적용되어 클러스터의 관리, 작업정보전송, 대형설비 원거리 모니터링, 무선영상모니터링, 그룹 내의 통화 및 데이터전송, 영상 업로드, 영상 개별전송 등을 실현했다.

춘탄항은 H986대형컨테이너 검역설비를 도입하여 컨테이너의 개폐 과정이 없이도 2분 만에 컨테이너 내부 스캔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녹색 항만은 충칭항무물류그룹이 창장 상류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슬로건’이다. 충칭항무물류그룹은 LNG클린에너지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대형전동설비, 기항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등 친환경·녹색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 : 航运交易公报, 2018. 2. 27.>

7 CHINA MERCHANTS GROUP, 이창시(宜昌市) 정부와 전략적 제휴 협의 체결

2018년 2월 26일, 푸강펑(付刚峰) 최고경영자는 Merchants그룹을 대표하여 이창시 인민정부를 대표하는 장자성(张家胜) 시장과 함께 전략적 제휴 협의를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르면, 양측은 창장경제벨트의 계획과 건설을 핵심으로 각자의 전략과 장점에 입각하여 자원공유, 인프라 공동 건설, 자본 공동융자의 원칙하에 구체적인 프로젝트, 업무, 투자플랫폼 자본합작, 항만 내 물류원구 종합개발, 물류교통, 자원통합, 금융, 관광 등 영역에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여 윈-윈을 실현하고 공동으로 성장한다.

푸강펑은 Merchants 그룹의 발전전략은 국가전략에 부합하고, 일대일로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그룹이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항만에 대한 인수가 완료되자 국내·외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는 Merchants 그룹이 소유한 52번째 항만으로서 그룹의 많은 항만들이 일대일로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Merchants 그룹은 해운·항만으로 시작한 그룹으로서 창장경제벨트 국가전략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의 창장경제벨트 전략을 지원할 것이다. 이창시는 후베이성(湖北省)의 리더 도시로서 창장경제벨트의 중요한 거점이다. Merchant그룹은 이창시와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협력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공동으로 국가 창장경제벨트 전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자성 시장은 현재 이창시는 종합능력이 보다 강한 성급 중심도시(省域副中心城市)로 육성하고 있고, 창장 중상류지역의 중심도시와 세계적인 수력발전 관광명소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건설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녹색성장, 도시기능 전환 및 약진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끊임없는 노력을 거쳐 양측은 전략적 제휴에 대한 공동 인식을 달성하였고, 이창시가 친환경, 구조 전환, 도약, 샤오강(小康) 목표를 위해 중요한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창시는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여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도록 한다. 그는 양측이 공동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국가창장벨트전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윈-윈의 양호한 국면을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 : 航运交易公报, 2018. 2. 27.>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 동향 & 뉴스

8 랴오닝성, 다섯 가지 조치로 '해양 생태적 관리' 추진

2월 27일, 랴오닝성 해양-어업 업무회의가 개최됐다. 올해 랴오닝성은 인간과 바다 간 조화·공생 이념을 실천하여 자원 절약이용과 생태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 시스템 구축과 능력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중대한 생태 프로젝트의 실시와 다섯 가지 엄격한 관리·통제 조치를 통해 해양생태문명 건설을 가속화시키며 '해양 생태적 관리'의 해양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회의에서 다섯 가지 조치를 제시했다. 첫째, 해양 공간관리 제도를 보완한다. 국가 해양국의 요구에 따라 랴오닝성은 성급 해양기능구획 개정의 전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새로운 차례의 해양기능구획 개정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보호와 보전 기능구의 면적 점유율을 높이고, 보호구와 보전구역을 위주로 하는 해양 기본기능구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가장 엄격한 바다매립 관리·통제조치를 취한다. 랴오닝성은 「바다매립 관리·통제 방법」을 착실히 이행하여, 지역건설 해역이용 제도를 취소하고, 기존 승인된 프로젝트는 즉시 정지한다. 원칙상 일반 바다매립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심사비준을 하지 않고 보하이 해역의 바다매립에 관한 심사와 수리를 전면적으로 정지한다. 황해 해역은 국무원이 승인한 중대 건설 프로젝트, 공공 인프라 시설, 공익사업과 국방건설 등 네 가지 해역이용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바다매립의 '공간'과 '용도' 제한심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연해 각 시는 양식으로 이용될 신규 바다매립에 관한 수리와 심사를 일시 중지한다. 건설을 목적으로 한 해역이용에 관한 통계기준을 엄격하게 실시한다. 해역이용권에 대한 논증과 심사를 엄격히 한다. 그리고 국가 정책이 발표된 이후 법과 규정에 따라 분류별로 정책 실시를 통해 바다매립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셋째, 해역관리와 해안선 보호를 강화한다. 해역 도서 유료이용 제도를 추진하고, 「해역, 무인도 유료이용에 관한 의견」을 제대로 관철시키며 해역이용금의 관련 지방 차원의 기준을 연구 제정한다. 또한, 무인도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문점과 의문구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그리고 자연해안선 보호를 연해 각 시정부의 실적평가 사항으로 포함시킨다. 연해 각 시는 해안선에 대한 분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해안선에 대한 불법 점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넷째, 연안해역의 생태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 올해 랴오닝성은 해양생태 레드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해양보호구 건설을 강화하고 '블루해만'과 '생태도서' 등 중대 생태 프로젝트를 계속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중점 구역에 대한 환경수용력 모니터링 조기경보와 통제제도의 시험사업을 추진한다. 「수질오염 방지 행동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전국에서 제2차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다섯째, 해양환경 보호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랴오닝성 해양환경보호 조례」에 관한 법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해양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관리를 규범화시키고, 사중사후(事中事后) 감독 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한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8. 3. 1.>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7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17년 중국 물류산업 회고와 2018년 전망
- ▶ 동향 & 뉴스

9 닝링(宁陵) 전국인민대표, 광둥성에서 해양 제5연구소 설립 제안

닝링(宁陵) 전국인민대표 겸 광둥해양대학교 경제관리대학 원장은 “광둥성은 매우 좋은 해양과학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해양경제 강성으로서 과학연구의 힘이 흩어져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해양경제는 이미 광둥성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부상했고, 국가해양국은 광둥성에 국가해양 제5연구소(이하 ‘해양5소’로 약칭)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광둥성 해양·어업 업무회의에서 발표된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광둥성 해양생산총액은 2012년에 1조 5,000억 위안에서 2017년에 1조 7,800억 위안까지 증가되었으며 연평균증가율은 11%를 기록하여 23년 연속 중국 지역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닝링 대표에 따르면, 광둥성은 강한 해양경제 역량을 보유한 해양경제 ‘강성(省)’으로서 경제성장은 과학기술과 떼어 수 없는 것이다. ‘12·5’ 기간에 국가가 해양체계에 대한 혁신을 ‘성(省)’ 단위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13·5’ 기간에는 ‘시’ 혹은 ‘원(园)’, ‘구(区)’ 단위로 추진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많은 연구기관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특히 심해와 원양 분야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 4개의 해양연구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각 산둥성 칭다오(青岛), 저장성 항저우(杭州), 푸젠성 샤먼(厦门) 및 광시성 베이하이(北海)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광둥성에서는 광둥해양대학교 등 몇 개의 대학교와 중국과학원, 해양국, 농업부 등 관련 기관이 해양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과학연구의 역량이 비교적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닝링은 광둥성에서 ‘해양5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잔장(湛江), 선전(深圳) 및 광저우(广州)를 3개 후보도시로 제시했다. 또한, ‘해양5소’는 해양 자연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해양인문과학과 싱크탱크에 관한 연구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8. 3. 5>